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교직원 불자 연우회, 제주 약천사로 춘계 템플스테이 다녀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1박 2일간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약천사에서 춘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약천사는 해인 스님이 1988년 불사를 착공했으며 이전부터 ‘뉘새미’ 흔히 ‘도약샘(道藥泉)’이라고 불리는 약수가 있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약수를 마시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에 좋은 약수가 흐르는 샘이 있는 근처에 절을 지었다고 하여 약천사(藥泉寺)란 명칭이 유래됐다. 이진호 의료원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덕유 스님,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각 기관장 및 연우회원 90여 명의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일상을 벗어나 교직원들의 정서적 회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마련한 지도법사 덕유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1박 2일 동안 나를 돌아보고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원 등 달기’ 점등식 개최

지난 4월 3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환자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원 등 달기’ 점등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소원 등 달기’ 행사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점등되어 병원 1층 로비를 밝히게 될 예정이며, 병원을 내원하는 내원객 및 환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점등식에는 지도법사 덕유 스님을 비롯해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교직원 및 내원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지도법사 덕유스님은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간 행사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이 공덕을 회향하고 싶다.”며, “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우 및 내원객, 교직원들이 소원 등에 불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희망걷기대회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8일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주최로 펼쳐진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서울도심지 남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만해광장에 집결하는 희망걷기대회 행사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부스를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핸드마사지, 네일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 부스와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서울여대 응원단과 가천대 태권도 시범단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뜻깊은 행사 동참을 위해 매년 행사장 의료지원 참여 및 병원 1층 로비에서 장기기증 캠페인 돌기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외래 및 병동 환아를 대상으로 건강강좌와 무료검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재활의학과 남기연 교수는 ‘우리아이 바른자세, 자세교정’을 주제로 성장기 아이들의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은 자세 불균형을 초래하여 만성피로, 요통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서부터 바른 자세를 갖도록 습관화하는 것은 가정과 학교의 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체질의학과 배효상 교수와 남기연 교수는 4층 명성 세미나실에서 사전에 예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질검사와 자세교정, 영상촬영, 체형측정 등 검진을 진행했으며, 이날 병원에서는 참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했다.



알 리 미

부처님오신 날 이벤트 ‘우리가족 주치의, 가족과 함께하는 한방병원’

기간 : 5월 7일(월)~14일(월) | 장소 : 1층 로비 및 3층 한방외래
내용 : 무료한방검사(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체성분검사) 및 진료

2018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대법회

일시 : 5월 16일(수) 17:30 | 장소 : 5층 대강당 및 1층 로비